

서울특별시의회 저출산·고령사회 문제극복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2017
----------	------------

제안년월일 : 2024년 9월 10일

제안자 : 운영위원장

1. 수정안의 제안경위 및 이유

- 2024년 8월 12일 강석주 의원 외 29명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의회 저출산·고령사회 문제극복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의안번호: 제2017호)에서 사용 중인 ‘저출산’ 용어를 ‘저출생’으로 수정하고자 함.

2. 수정안의 주요내용

- 가. 특별위원회의 명칭을 수정함(안 제목 수정).
- 나. 결의안 주문 및 제안이유, 본문 중 ‘저출산’ 용어를 ‘저출생’으로 수정(안 주문 및 제안이유, 본문 수정).

서울특별시의회 저출산·고령사회 문제극복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의회 저출산·고령사회 문제극복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목 및 주문 및 제안이유, 본문 중 “저출산”을 “저출생”으로 한다.

서울특별시의회 저출생·고령사회 문제극복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강석주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2017
----------	------

발 의 년 월 일 : 2024년 08월 12일

발 의 자 : 강석주, 김규남, 김영옥,
김영철, 김용호, 김원중,
김원태, 김재진, 김종길,
김지향, 김혜영, 남궁역,
남창진, 도문열, 문성호,
박상혁, 박 석, 박성연,
박춘선, 서상열, 송경택,
신동원, 신복자, 윤기섭,
이상욱, 이숙자, 이종배,
이종환, 장태용, 최민규
의원(30명)

1. 주문

-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3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가 직면한 초저출생·고령사회의 문제를 인식하고 극복하기 위한 방안 마련과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실효성있는 정책을 추진하여 지속가능한 성장도시를 실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의회 저출생·고령사회 문제극복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 위원수는 15명 이내로 하며, 그 활동기간은 위원선임일로부터 6개월로 하되, 필요시 본회의의 의결로 한 차례에 한정하여 6개월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 본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이 종료하기 전까지 활동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한다.

2. 제안이유

- 정부는 2024년 6월 19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를 통해 인구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총력 대응 체계를 가동하기로 함.

- 서울시는 2023년도 전국 합계출산율인 0.72명보다 현저히 낮은 0.55명으로 이는 전국 최하위 수준이며, 아울러 세계 최하위임.
- 서울시는 2005년부터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으며, 2026년에는 초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이 예상되고 있어, 이러한 급속한 인구 변화는 전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어려운 속도로 서울시는 저출생과 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적이고 다각적인 정책이 필요한 상황임.
- 이에 서울시의회는 서울시가 직면한 저출생·고령사회에 대한 정책을 점검하고 평가하여, 실효성있는 정책을 발굴하고 제안하기 위한 범상임위원회 차원의 활동을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서울특별시의회 저출생·고령사회 문제극복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 정부는 지난 6월 19일 ‘2024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에서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저출생 문제를 극복할 때까지 범국가적 총력 대응체계를 가동했다.
- 이러한 저출생의 심각성은 매년 발표되는 합계출산율의 지속적인 감소와 그 감소추세의 증가율로 확인된다. 2000년 전국 합계출산율 1.48명에서 2023년 0.72명으로 절반이하로 감소했으며, 서울시는 1.27명에서 0.55명으로 그 감소의 폭은 전국 지자체중에 단연 최고이며, 수년째 합계출산율 전국 최하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 이는 국내 뿐만 아니라 세계 최하위 수준이다.
- 아울러, 2005년 국제연합(UN)의 기준에 따른 서울시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이 7%를 넘어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으며 앞으로 불과 2년후인 ‘26년에는 20.9%가 넘어 초고령사회에 진입이 예상되고 있다.
- 현재의 급격한 인구 변화는 전 세계 어느 국가에서도 유례를 찾기 어려운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서울시는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2024년 한 해 동안 1조 8천억 원을 투입하여, '탄생응원 서울 프로

젝트'를 통해 결혼, 출산, 육아의 전 단계에 걸쳐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동시에 초고령 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어르신들을 위한 일자리 지원과 돌봄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디지털 시대에 사회와의 단절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부족한 상황으로, 선제적인 정책 발굴이 필요하다.

- 서울시는 도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저출생과 고령사회를 각각의 개별적인 현상이 아닌 급격한 인구 양극화의 연쇄적인 공동 문제로 보고, 통합적인 정책과 균형있는 재정 투입에 관한 연구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 이에 서울시의회는 시민의 복지 실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부서 간 및 상임위원회 간 장벽을 허물고, 탄생 응원 지원, 지속 가능한 경제 활력, 콤팩트 도시 조성, 건강 및 활력 증진 생활 지원 정책 등 저출생 및 고령화 관련 정책을 종합적이고 다각적으로 점검하며, 실효성 있는 정책을 발굴하고 제안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저출생·고령사회 문제 극복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을 결의한다.

2024. 8. 9.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일동